

같은 군함에서 복무한 함장, 정위 등이 모두 '3퇴'하다

[밍후이왕] 같은 군함에서 복무했고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제대 노병들이 정월에 다시 한번 호텔에 모였다. 그 중에는 내가 복무할 당시의 함장, 정위, 부함장, 기관장, 장교, 병사 등 몇 사람이 있었다.

술이 세 순배 돌고 난 후 노 정위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관통장(觀通長), 자네가 파룬궁을 연마해 건강을 회복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탄복하네. 그런데 탈당을 원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 당은 우리한테 퇴직금을 두둑하게 주고, 의료비를 결산해 주고, 근심걱정 없이 생활을 하도록 해주네. 우리는 만년을 편안히 보내기를 바라고, 중국에서 동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 나는 자네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고 찬성도 하지 않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함장에게 물었다. “왕 함장님, 무슨 고견이 있으세요?” 함장은 말했다. “그래도 자네 설명을 들어보아야지!”

나는 환한 얼굴로 정위를 보며 말했다. “저는 저의 관점을 남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진리에 복종하라’는 말은 정위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었죠?” 정위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정위님의 관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확한 결론을 내려 보세요. 우리의 퇴직금, 의료비는 모두 당(中共)이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일생을 분투해서 번 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국민들이나 납세자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절대 당의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당이 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생산을 파괴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고, 돈을 헤프게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파괴적인 건설을 하지 않고, 대외 원조 등등을 적게 하면 국민들은 정위님께 정정당당하게 더 좋은 대우를 해 줄 겁니다. 당은 수십 년 동안 납세인의 수많은 재산을 훔쳐 불법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종래로 장부를 감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위법이고 범죄입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나는 또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이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안정된 환경을 바라는 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의 이 염원은 중공에 의해 철저히 파괴될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한테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장쩌민이 끼친 영향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당, 정, 군, 민까지 전국이 크게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서 도덕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진핑과 왕치산이 반부패라는 수단으로 당을 좋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국가를 바로 잡으려 하지만, 이런 과대망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 아주 위태롭게 할 겁니다.

◆장쩌민 이익 집단은 이미 혹은 현재 각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고 정국을 교란해서 온 나라에 재앙을 가져오고 있고, 심지어 배수진을 치고 같이 죽자는 심보로

시진핑, 왕치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존환경이 장쩌민과 그가 육성한 부패 관리들 손에 전면적으로 파괴당했고, 빈부 격차는 이미 폭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각 지역 당·정 주관, 정법위와 그 계통은 일상적으로 각종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민중을 탄압하고, 무고한 농민, 노동자, 민주인사, 정의인사와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으로 수감하고 납치하고 심지어 판결하는 등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원죄, 날조, 오심 사건을 대량으로 만들어 민중을 분노하게 합니다.

◆중공의 관원, 양회(兩會,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들은 모두가 족과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저마다 여러 개의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개를 돌리면 정색해서 중국인을 이끌고 계속해서 사회주의의 길로 가겠다고 말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독이 있고, 심지어 입고 자는 것에도 다 독이 있고, 숨을 쉬면 독을 들이 마시게 됩니다. 독이 없는 곳이 없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병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현재는 이미 2억 3천만 명이 당, 단, 대를 탈퇴해서 중공이 멸망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소와 언급하지 않은 대량의 요소를 종합하면, 사람들이 당을 보호함으로써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려 하지만, 필연코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빨리 중공을 해체해야만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과 왕치산이 당을 보호하든, 멸망시키든, 또 장쩌민 이익집단이 언제 멸망하든 상관없이 마음의 눈을 열고 하늘의 뜻에 따라 즉시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총명한 사람이고, 반드시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나라 내 말을 듣고 기관장과 몇몇 병사들이 먼저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당신 말대로 탈당하겠습니다!” 내가 정위와 함장을 보니 정위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 관점에 이견이 없네. 함장님 우리도 추세를 따릅니다. 어때요?” 왕 함장은 유쾌하게 말했다. “탈퇴합시다! 즉시 탈퇴합시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탈당 논단 개최

[밍후이왕] 2016년 4월 11일과 12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에번즈빌(Evansville)시와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 스튜어트 센터(Stewart Center)에서 연속으로 두 차례 탈당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욕 탈당서비스센터의 데이비드 톰킨스(David Tompkins)는 논단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공은 60여 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면서 통신검열과 세뇌 선전을 통해 사람들이 진실한 역사와 중공의 진면모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2004년 11월, 해외 중문매체 ‘대기원시보’가 ‘9평 공산당’ 시리즈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3퇴(퇴당, 퇴단, 퇴대)’ 대고조가 일어났습니다.”

톰킨스는 말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선서를 요구받는데, 중국을 향해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선서입니다. 이것이 세뇌의 시작입니다.” 탈당 운동은 명의를 ‘당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정치체제상의 요구도 없다. 다만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중공의 세뇌선전에서 벗어나 중국인의 전통적인 도덕 가치와 관념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줌으로써 완전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산당이 없는 전혀 새로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미국무원 연례 인권보고, 파룬궁 등 단체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진행중

[밍후이왕] 2016년 4월 13일, 미국 국무원은 2015년도 각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변호사 등의 인권을 잔혹하게 탄압한 중국공산당을 비판했다. 중공은 이밖에도 파룬궁 등의 단체를 지속적으로 박해하면서 엄청난 흑형을 자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의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중공이 여전히 강제로 인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 국무장관 워렌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보고서에서 채택한 표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받아들인 인권표준과 국제표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접수를 하는 동시에 여전히 이런 규범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한 정부나 기구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형식의 흑형 사용에 반대합니다.”

보고서는 중공이 행정구류를 이용하여 정치 및 종교 활동 인사들을 위협하고, 대중의

항의를 저지했음을 밝혔다. 행정구류 형식에는 ‘수용교육’, ‘구류와 훈련’, 그리고 정치·종교 활동인사, 특히 파룬궁 수련생들을 겨냥한 ‘법제교육’센터가 포함됐다.

활동인사, 반체제인사, 파룬궁 수련생, 기자, 미등록된 종교인사와 정치범의 가족들은 임의 체포, 납치, 구류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중국인이 중공에 의해 입국을 거절당했는데, 반체제 인사와 파룬궁 수련생이 포함됐다.

중공 당국은 여전히 ‘민감한 단어’를 걸러낸다. 당국은 파룬궁 내용이 포함된 전자메일과 인터넷 대화에 대해 자동 심사를 진행한다.

보고서는 또 의학전문가와 인권 운동가의 관점을 언급했는데, 중공의 장기기증 계통의 장기 출처가 정말로 자원하여 기증한 사형수들인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백만 위안을 써도 낫지 않던 피부병이 5일 만에 완치되다

[허베이 투고] 며칠 전 장터에서 한 가게 주인을 만났는데, 50세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붉은 종기가 가득했다.

우리는 그에게 파룬궁(파룬따파)을 소개하면서 파룬궁은 ‘진, 선, 인’을 근본 지도로 하는 불가의 수련대법이며, 파룬궁을 수련하면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크게 공감했고, 동시에 ‘3퇴(퇴당, 퇴단, 퇴대) 보평안’의 도리도 알게 되어 ‘3퇴’에도 동의했다. 우리가 ‘9평 공산당’ 책자와 진상자료 몇 부를 주자 그는 아주 기뻐했다. 그는 우리가 방에 있는 ‘파룬따파 하오’ 접착 진상지를 보고 말했다. “나한테 몇 장 주세요. 붙이는 걸 도와 드릴게요.”

5일 후 우리가 장터에서 그를 다시 만났는데, 문 앞에서 있던 그가 우리를 보자 외쳤다. “빨리 오세요.” 내가 다른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건너가 보니 그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고, 붉은 종기가 사라진 깨끗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내 몸에 있던 종기가 모두 없어졌어요.” “내 피부병은 십 몇 년이 됐는데 전신에 모두 있었습니니다. 나는 베이징, 상하이의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 다녔고, 한 번 입원하면 반 년 씩 치료받으면서 백만 위안을 넘게 써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9평 공산당’을 보았더니 저절로 좋아졌어요. 몸의 종기도 딱지가 앓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은 ‘9평 공산당’을 여러 번 읽어



모두 외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말했다. “내가 ‘파룬따파 하오’ 표어를 붙이는데 공산당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서 말했어요. ‘아저씨,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들이 나를 알지만, 모두 내 후배라 무섭지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세요. 나는 차가 있는데, 아무도 내 차를 못 막아요.” 우리는 그가 어떤 신분인지 몰랐지만, 그는 전화번호와 본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 우리도 아주 기뻐했다. 우리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당신이 이익을 얻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해 주세요. 이걸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3퇴’에 동의해 얻은 복입니다. 파룬궁이 당신에게 건강을 준 겁니다.” 그는 말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파룬궁 자료를 가게 계산대 위에 놓고, 오는 사람 마다 보여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떠날 때 가게 주인은 거듭 당부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찾으세요.”

중공이 ‘반화세력’

[밍후이왕] ‘반화세력’이라는 단어는 중국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데, 이는 중공의 살인에 반대하는 모든 군체를 중공이 ‘반화세력’으로 몰아왔기 때문이다.

‘화’는 중화민족을 가리키므로 ‘반화’하려면 반드시 중화민족의 5천년 혈맥인 중화문화를 잘라내야 한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살육은 바로 100여 년 된, 중공이라는 서방에서 온 ‘유령’의 ‘낯과 도끼’에 의해 서만 실현되었다.

중공은 우리 중화의 혈맥을 끊고, 수억의 중국 사람을 기만해 마레 사고를 신봉하게 하고 더 이상 스스로 중화의 아들 딸로 여기지 않게 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중공의 당, 단, 대에 가입할 때 우리의 선조 염황(炎黃)이 아니라 중공과 마레에게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데 동의하게 했기 때문이다.

현재 갈수록 많은 민중이 파룬궁 수련생의 도움으로 중국 공산당의 진면목을 분명히 깨닫고, 중공과 중국이 같지 않으며 애국과 애당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모든 ‘애당’자가 사실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애당’은 바로 무고한 8천만 중국 민중에 대한 중공의 학살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중공의 ‘6·4’ 대학생 학살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생체장기 적출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늘 이런 말을 들었다.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신불(神佛)이 하세해 사람을 구할 것이다.” 신불이 정말로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마음 속에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 하오(真善忍好)’를 간직한 사람들은 모두 각종 재난에서 전화위복을 경험하고 위험을 피했다. 신불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중공에 속아 신불도 사람처럼 친히 손으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들리는 어리석은 말은 바로 “신불이 어디에 있는가? 직접 보면 믿겠다”는 말이다.

신불은 법력으로 사람을 구하며, 오직 선량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 중공이 무신론을 주장하므로 중공 조직 내의 사람들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해야만 신불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누구든 ‘반화세력’이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반공’으로 인식하고, 바로 중공의 국민 살해에 반대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화세력’이라는 말은 중공의 특허로써, 전 세계에서 중공을 제외하면 둘도 없기 때문이다.